

양란(兩亂) 이후 상소문에 나타난 질병 표현의 변화

-조경(趙綱)의 경우를 중심으로-

김하리*

1. 서론
2. 상소문에 나타난 질병의 양상과 그 의의
3. 결론

<국문초록>

본고는 조경(趙綱)의 문학에서 질병이라는 경험이 갖는 의미에 대해 그가 공적 견지에서 쓴 글들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밝히고자 하였다. 조경의 문집 가운데 사적인 글을 살펴보면, 그가 자신의 질병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타인의 병증에 대해 언급한 경우에 비해 현저히 적다. 뜻밖에도 그의 구체적인 병력이 드러나는 곳은 지극히 공적인 입장에서 쓴 상소문류의 글이라는 점이 주목된다. 조경의 상소문에는 질병에 관련된 언급이 무척 빈번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그가 43세이던 1628년부터 80세가 되던 1688년까지 지속되는 경향을 보인다. 그는 상소문 가운데서 주로 자신과 모친의 질병, 그리고 나아가 국왕의 질병에 대해서까지 꾸준히 언급하여 각각의 글에서 자신의 취지를 전달하는 근거로 삼고 있다. 이 가운데 사적을 목적으로 올린 상소문을 검토하면 40년 가까이 지속된 그의 관력이 그 자신 및 모친의 병력이라는 개인적 상황과 밀접하게 맞물려 있는 양상이 오롯이 재현된다. 그 정도로 그의 상소문에서는 자신과 모친의 병에 대한 전문적이고도 쫓진한 묘사가 나타나고 있다.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선임연구원

이와 같은 조경의 상소문은, 우선 전란의 경험과 그에 따른 육체 및 질병에 대한 관심이 공적 영역 가운데 개인의 문제를 어떻게 부각시키기 시작했는지를 명료히 보여준다. 아울러 전쟁 직후 ‘의료화’라 할 수 있는 사회적 이고도 역사적인 변화가 가속화되던 17세기 조선의 현실 속에서, 그 이전에는 수사(修辭)에 불과했던 사직 상소의 칭병(稱病) 어법이 질병에 대한 고도의 사실적인 인식과 표현으로 진전해나갔던 양상을 대단히 전형적으로 구현해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조경의 상소문은 의의를 갖는다.

핵심어: 조경(趙綱), 상소문, 질병, 병록(病錄), 전란

1. 서론

용주(龍洲) 조경(趙綱, 1586~1669)은 17세기 조선의 주요한 관료문인 가운데 한 사람이다. 그는 기존에 자주 언급된 한문사대가(漢文四大家) 즉 이정구(李廷龜, 1564~1635), 신흠(申欽, 1566~1628), 장유(張維, 1587~1638), 이식(李植, 1584~1647)과 같은 동시대 문인들과는 구별되는 작품세계를 구현하고 있으며 이는 그가 지닌 남인 계열 문인으로서의 정체성이라는 정도 관련된다고 보인다.

필자의 기존 논의에서는 조경의 작품 자체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그의 개인적이고도 내밀한 면모에 우선 접근하고자 했다. 이로써 선행 연구에서 이미 언급된 그의 문학론이라든가 생애의 공적 면모가 그의 문학세계와 어떻게 연결되거나 모순되는지에 관해 해명하고자 한 것이다. 이에 조경이 가족 및 친지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쓴 제문을 분석해 보았는데, 그 결과 해당 글들이 하나의 뚜렷한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것은 제문의 대상이 되는 인물들의 생애를 형상화하고 그들을 애도하는 데 ‘질병’이라는 사항이 하나의 중요한 계기로 작용한다는 점이었다. 또한 조경이 쓴 가족과 친지의 제문을 분석하는 가운데, 그가 사적인 관계 안에서 주로 의사(醫師)의 시선으로 타인의 질병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스스로 책임감을 유지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¹⁾

이처럼 질병에 대한 특유의 시선을 유지한 것이 그의 문학세계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는 조경이 만년에 쓴 질병에 대한 글에 잘 나타나 있다. 조경은 『질병 이야기』(病說)라는 산문에서, 질병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을 포함한 우주의 만유가 지닌 보편적 문제이며, 이 문제를 삶으로부터 분리할 수 없으리라는 발견을 통해 육체와 정신의 이분법으로부터 벗어난 심원하고 포용적인 인간관 및 세계관으로 다가가고 있었다.²⁾

본고에서는 여전히 질병이라는 한 가지 단서를 바탕으로 하되, 논의의 대상을 사적인 차원으로부터 좀 더 확대하여, 조경의 문학에서 질병이라는 경험이 갖는 의미에 대해 심화된 검토로 나아가고자 한다.

2. 상소문에 나타난 질병의 양상과 그 의의

(1) 상소문에 수렴된 조경과 그 모친의 병력(病歷)

앞서 언급한 『질병 이야기』에서 조경은 그 자신을 사람 구실을 못할 정도로 아팠던 사람으로 묘사했다.³⁾ 이 점은 타인의 질병에 대한 책임감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질병의 경험 역시 그의 생애와 인생관에서 중요한 계기가 되었음을 짐작케 한다.

조경의 문집에 수록된 사적인 글들을 보면 다음과 같이 자신의 질병에 대한 특유의 시선을 보여주는 것들이 간혹 눈에 띈다.

少味頤生老縛官
 況逢離亂遍艱難
 濕侵腰脚筋先弱
 氣壅肝腸足又寒

젊어선 양생(養生)을 모르고 늙어선 벼슬에 매였으며
 하물며 난리 만나 온갖 간난 겪었음에랴.
 허리와 다리에 습증(濕症)⁴⁾ 들어 근력 먼저 약해지고
 간장에 기옹(氣壅)⁵⁾되고 발은 또 차가워져.

1) 김하라, 『龍洲 趙綱 문학에 나타난 질병의 형상화』, 『한국한문학연구』 52, 한국한문학회, 2013.

2) 김하라, 위의 논문, 40~43면.

3) 趙綱, 『病說』, 『龍洲遺稿』 卷12, “十年抱病, 羸瘁骨立, 或竭睡而待朝, 或木強而難俯, 覈暗口喏, 若不支朝夕者, 吾嘗折肱而尙且爲人於世, 而今除疾也.”

4) 습증(濕症): 습기로 인하여 생기는 병. 원인에 따라 저리고 붓는 따위의 여러 증세가 있다.

伏枕兩年微藥力
尋醫此日怯鍼端
平生賴有靈臺靜
遲爾青囊起死丸

한 해 가도록 자리에 누웠는데 약도 소용없고
오늘은 의원 찾아가니 침끝이 겁나네.
평생 마음이 고요한 데 힘입었나니
죽은 이도 일으킨다는 청낭의 약은 더디기만 하네.⑤

우선 젊었을 때 몸을 보살피는 데 힘쓰지 않고 나이가 들어서 쉬지 않고 관력(官歷)을 이어나갔으며 특히 전란을 겪었던 것이 만년에 이르러 건강이 악화된 원인이 되었다는 간명한 통찰이 눈에 띈다. 또한 허리와 다리에 증증이 있어 근력이 없다는가 간장에 기운이 못치고 발이 차다는 등의 가(醫家)의 전문용어를 사용한 진단은 당시 그의 신체적 상황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역시 주목된다. 짙막한 시 한 편에 자신의 병력(病歷)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정보를 담고 있다는 점은 그의 문학세계가 신체 및 질병의 문제와 밀접하게 이어져 있다는 데 대한 단서를 제공한다.

그런데 조경의 문집을 검토해 보면, 의외로 그가 사적인 글에서 자신의 병에 대해 언급한 예가 그리 많지 않다는 점을 발견하게 된다. 오히려 공적인 입장에서 쓴 상소문 가운데 신병(身病)의 문제가 비교적 빈번히 등장하고 있다는 점을 그의 문집이 보여주는 하나의 경향성으로 지적할 수 있다.

조경의 상소문을 검토해보건대, 그의 관력에서 질병이라는 계기가 중요하게 부각되기 시작한 시기는 1628년경으로 비정할 수 있다. 이 때 그는 영남에 머물다가 임명을 받고 무리해서 상경하느라 위가 메스거리고 속이 허해 설사를 하며 허리가 땅기고 빠근하여 몸을 굽혔다 폈다 하기 어렵고 머리가 아프다는⁶⁾ 등의 증상을 홍문관(弘文館) 교리(校理)를 사직하는 이유로 제시했다. 또한 이 시기부터 그는 모친의 병을 이유로 사직상소를 거듭 올렸는데, 이는 전란으로 인해 가족이 이산하게 되며 모친이 영남 거창(居昌)의 피난지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던 상황에 기인한다. 조경은 서울에서

5) 기옹(氣壅): 기운이 울결되어 답답한 병증이다. 울증이라고도 한다.

6) 趙綱, 『病中遺懷, 示裴開士』, 『龍洲遺稿』 卷4

7) 趙綱, 『辭弘文館校理疏』, 『龍洲遺稿』 卷6, “今承恩命於嶺外, 亦會病力時, 而義不敢堅臥於家, 強起上道, 十有餘日, 僅得入京. 扶曳肅謝之後, 則諸症叢發, 臟胃潰亂, 中虛暴下, 腰居牽急, 屈伸皆礙, 頭顱滯澀, 精神昏倒.”

관력을 이어나가던 중 간간이 사직상소를 올린 후 거창에 가서 병든 모친의 곁에 머물거나 혹은 거창에서 모친을 모시고 서울로 돌아오는 등의 행보를 보인다.

기실 조정의 친어머니 문화유씨(文化柳氏, 1565~1598)는 그가 13세이던 해 세상을 떠났고, 그가 상소문에서 언급한 어머니 진천송씨(鎭川宋氏, 1579~1665)는 그 이듬해 들어온 계모로서 의붓아들인 조정보다 고작 8세 연상일 뿐이다. 그럼에도 조정은 그 아버지 조익남(趙翼男, 1564~1613)이 돌아가신 이래로 혼자 남은 새어머니를 친어머니 이상으로 극진히 모셨으며 이 점은 우선 그가 쓴 상소문 안에 모친의 상황이 그 자신의 처지에 버금가게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다는 데서 확인할 수 있다.

“가난과 병에 시달린 지 십여 년이 된 데다 난리를 만나 영남으로 피난하면서 고생하며 놀라고 두려운 나머지 병이 악화되었다”⁸⁾고 다소 모호하게 표현한 모친의 병중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인 진단을 내리기 시작한 것은 병이 지속된 지 10년쯤 된 시점부터이다. 조정은 1639년에 쓴 사직 상소에서 어머니의 목은 병이 고질이 된지 십 년이 되었다고 하며 그 해 여름에는 병증이 평소의 두 배로 악화되어 온몸에 부창(浮脹: 심하게 붓는 증상)이 나타나고 식욕부진 및 불면 증상도 있음을 밝혔다.⁹⁾ 1641년에 쓴 「병든 모친을 뵈기를 청하는 소」(請觀病親疏)에서도 온몸에 붓지 않은 곳이 없고 병증이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심하게 악화되어 심지어 돌아누울 수 없고 호흡이 가쁠 정도이며 식욕부진 및 불면 증상도 여전하다고 한바 같은 증세가 별 차도 없이 지속됨을 알 수 있다.¹⁰⁾ 1643년에 조정은 일본 통신사의 부사(副使)로 파견되게 되는데, 이 때 그는 육로로 부산까지 가는 공식적 경로를 잠시 이탈하여 모친이 계신 홍주(洪州)를 경유하도록 허락해 달라는 상소를 올린다. 모친의 주된 병인 부창증은 여전히 낫지 않

8) 趙綱, 「乞郡疏」, 『龍洲遺稿』卷6, “伏以小臣有母, 貧病爲生, 十數年於此矣。加以遭遇亂離, 流落嶺南, 顛頓驚怖之餘, 病日益加, 衰日益甚, 旅食亦何能有?”

9) 趙綱, 「辭職疏」, 『龍洲遺稿』卷6, “臣宿病爲痼, 十年於此矣。(…)厥疾添劇, 有倍平日。當此夏月, 遍身浮脹, 飲啖日減, 寢睡全廢。”

10) 趙綱, 「請觀病親疏」, 『龍洲遺稿』卷7, “伏以小臣有母年迫七十, 得浮脹之疾, 于今十有一年, 一身四末, 無有不浮處。其爲症, 例因春夏之交而劇, 劇則不能轉側俯仰, 呼吸煩促, 夜不交睫, 食飲專廢, 殆不能救者數矣。” 글 안에 작년에 아우를 여의었다는 언급이 있는데 그 시기가 1640년에 해당하므로 이 글을 쓴 때를 1641년으로 비정할 수 있다.

고 있지만 그 전해부터 뜸 요법을 써서 약간의 효험을 보고 있던 중이며 자신이 치료 과정을 직접 지켜보아야 한다는 취지이다.¹¹⁾ 3년 뒤인 1646년에 그는 모친이 쑥뜸의 부작용으로 극심한 통증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며 대제학을 사직하고자 상소를 올렸고, 같은 해에 전염병이 창궐하였을 때에도 모친을 보호하기 위해 말미를 얻고자 상소를 올리는 등 모친의 건강을 예의주시하는 면모를 변함없이 보이고 있다.¹²⁾ 이와 같은 병증에도 불구하고 진천송씨가 87세의 장수를 누렸다는 것은, 조경이 어머니의 병구완에 얼마나 정성을 쏟았는지를 방증하는 일이다.

한편 조경의 병증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시기 역시 모친 진천송씨의 부창증이 발병한 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는 1639년에 쓴 『사간을 사직하는 소』(辭司諫疏)에서 무릎이 저리고 허리가 빠근하여 거의 하반신을 움직이기 어렵고, 남의 도움 없이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처지라고 자신의 증상을 설명했다.¹³⁾ 이는 그가 1628년에 이미 언급한 것들 가운데 허리가 땅기고 빠근한 증상이 10년 동안 지속되어 하반신 마비에 준하는 병증으로 악화되었음을 알게 한다. 이후로도 그는 1645년에 다리 마비 증세가 재발하였다고 대사간을 사직하는 상소를 올렸고¹⁴⁾ 1650년에는 근무지 근처에서 밭을 헐다던 낙상사고를 당한 것을 이유로 예조판서를 사직하는 상소를 올린바,¹⁵⁾ 그가 1628년 이래 다릿병으로 계속 고통을 받았던 정황을 짐작할 수 있다.

11) 趙綱, 『通信使時, 請省觀疏』, 『龍洲遺稿』卷7, “伏以臣有老母, 患浮脹之疾, 十有餘年, 多方用藥, 終未奏效. 前年始以醫命用灸法, 差有少效, 而未卒其功, 醫云仲春之月, 正合更灸, 而前月臣遽承召命, 不敢有待, 顛倒入京, 則使臣發行, 已卜今月二十日, 其間呈觀往來固不暇. 且洪州地與使臣應行直路相左, 其勢又不可因使經過母所, 則親瘡灸艾, 爲子者不得暫審其良否, 而終孤面別也.”

12) 趙綱, 『辭大提學第一疏』, 『龍洲遺稿』卷7

13) 趙綱, 『辭司諫疏』, 『龍洲遺稿』卷7, “顧臣痼病之狀, 難以言盡, 大約膝腰痠澁, 非假人力則不能運身一步也. 朝廷禮嚴, 趨踰有節, 足疾辭位者古人亦多, 況自腰以下全欠屈伸者乎?”

14) 趙綱, 『辭大諫仍陳所懷疏』, 『龍洲遺稿』卷7, “不但臣母之病如上所陳, 臣亦新經慘喪之餘, 眼疾添重, 脚痿復舊, 昏憒顛錯之狀, 在京時人人之所共見也. 下鄉之後, 僵臥焚次, 日事呻痛, 斷無筋力一步之望.”

15) 趙綱, 『辭禮判初疏』, 『龍洲遺稿』卷8, “伏以臣頃日閤門之外, 失足墮傷, 不得入參藥房問安之後, 惶蹙之極, 敢將尺疏, 上煩天聽. 不意聖慈加矜, 至遣內醫看病, 且垂藥物. (….) 小臣顛墮之痛, 不但尚在肩脅間, 加以痔肛之症, 植根甚固, 發作無常. 數日來症勢輒劇, 坐臥俱礙, 晝夜爲苦, 小動則小發, 大動則大痛. 凡人以水穀爲命, 而水穀入口, 亦皆助痛, 千方百藥, 亦無少效. 豈非命物者僧臣無用, 而欲欲困臣於未死之前也?”

이처럼 조경은 공적인 입장이 요구될 것으로 짐작되는 상소문 가운데 자신과 모친의 신병(身病)이라는 개인적인 사항을 대단히 구체적이고도 지속적으로 언급하였다. 이 점은 우선 상소문이라는 문체의 특징과 전변 과정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있다. 또한 나이차가 8세에 지나지 않아 같은 세대에 해당하고 똑같이 80세 이상의 장수를 누렸다는 점에서 상당한 유사점을 갖는 이 명목상 모자(母子)의 병력을 비교검토하는 것은, 상소문이라는 문체의 특수성을 포괄하며 그것을 넘어서서 조선후기의 질병과 의료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이 점에 대해 다음 절에서 상술하고자 한다.

(2) 사직상소(辭職上疏)의 ‘칭병(稱病) 어법과 조경의 질병 묘사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경의 계모 진천송씨와 조경은 저마다 부창증과 하반신 마비 증상이라는 별도의 질환을 오랜 기간 동안 앓았다. 그런데 이들의 병력에서 주목되는 것은 조경이 파악하고 있는 질병의 발발 시점이 1628년경으로 서로 겹치고 있다는 점이다. 조경은 자신과 모친의 질병이 10년째 지속된 즈음 비로소 이 점에 대해 언급하며 이 질병이 전란의 경험으로 소급되는 것이라는 인식을 보였다.¹⁶⁾ 이와 같은 그의 통찰은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가지며 사직상소문을 비롯한 상소문류의 글들이 전란 이후 모종의 변화를 겪게 되었으리라는 추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조경은 생애 동안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모두 겪은 불행한 세대에 해당하는 인물인바, 전란의 시대에 공적으로는 관료로서 조경에 의무를 다하고 사적으로는 가장으로서 가족을 돌보아야 했던 그의 개인사는 문학세계에도 깊은 흔적을 남겼다. 이런 견지에서 그가 문자화한 경험 가운데 가장 주목할 대상은 아마도 전란의 경험일 것인데, 다음은 그러한 예 가운데 하나로 병자호란 직후 그의 육체적, 정신적 상황을 몹시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글의 일부다.

신은 본래 잔약하고 병든 사람으로 변란이 일어났던 처음에 호종(扈從)하지

16) 趙綱, 『辭職疏』, 『龍洲遺稿』卷6, “臣母宿病爲癘, 十年於此矣. 其在變初, 臣入冠岳, 母入嶺東, 徒步險阻, 迨來居昌, 得免丘壑, 實爲天幸, 而厥疾添劇, 有倍平日.”

못하고 얼음 언 절벽과 눈 쌓인 골짜기에 숨어서 거의 50일을 지냈습니다. 그러느라 살갗이 갈라지고 몸이 얼었으며, 손톱과 발톱이 죄다 빠졌습니다. 고향에 돌아와서는 집에 쓰러져 누워있었는데, 여름부터 가을이 될 때까지 뼈며 털이며 손톱이며 치아까지 어느 한 곳 아프지 않은 데가 없어, 미친 듯 울부짖으며 숨이 끊어지게 해 달라고 애걸한 적이 몇 번인지 모릅니다. 끝내는 고각(股脚: 허벅지와 다리)에 궤랭(厥冷) 증상이 생겨 마치 서리와 눈을 껌안고 있는 듯하였고, 피가 메마르고 뼈만 앙상하게 되어 곧 마비 증상이 생겼습니다. 폐질자(廢疾者)가 된 것을 제 분수로 여기고 오직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¹⁷⁾

윗글에 언급된 50일은 윗글의 수신자인 인조(仁祖)가 남한산성에 포위되어 있었던 47일과 거의 겹친다. 전란이 일어나고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피난을 떠났을 때 조경은 미처 왕을 호종하지 못하고, 그 대신 과천(果川) 현감인 벼 김염조(金念祖, 1589~1652)와 더불어 관악산(冠岳山)으로 들어가 병사를 모집하고 후일을 도모하고자 했으며, 이런 사정은 1636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쓴 조경의 일기에 상세히 나타나 있다.¹⁸⁾ 그는 훗날 김염조를 위해 쓴 제문에서 “생각하면 옛날에 그대와 함께 / 적군을 피해 관악산에 들어가 / 눈을 먹고 도토리 주우며 / 잠깐 목숨을 이어나갔지”¹⁹⁾라고 하여 이때를 회상하기도 했다.

벼의 죽음 앞에서 함께 고생했던 일을 회상할 때와는 달리, 위의 인용문에 나타난 전란의 경험과 그 영향은 상당히 구체적이다. 임동설환에 산중에서 지내느라 한기에 몸이 손상되어 처음에는 몸이 얼고 피부가 갈라지고 손톱과 발톱이 빠지는 등 동상 증세를 겪었고, 전쟁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와서도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여길 정도로 온 몸 구석구석에 통증을 겪었으며, 결국에는 궤랭(厥冷: 체온이 내려가면서 손발 끝에서부터 차가워지는 병)과 마비 증상이 발생하여 폐질자가 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이렇듯 50일 동안의 전란의 경험은 계절이 바뀐 뒤에도 여전히 온몸에 차디찬 추위의 흔적을 남기고 있었음을 조경은 그로테스크할 정도의 사실적인 묘사로

17) 趙綱, 『辭司諫疏』, 『龍洲遺稿』卷6, “臣本孱病之人, 曾在變初, 不能扈從, 竄伏水崖雪壑之中, 幾至五十日, 肌肉皸凍, 爪甲皆脫, 及乎歸鄉, 僵臥焚次, 自夏入秋, 骨毛爪齒無一處不痛, 狂呼乞絕, 不知其幾, 終也股脚厥冷, 如抱霜雪, 血槁骨立, 仍作不仁, 自分廢疾, 唯待死日.”

18) 조경 저, 권오영 역, 『용주일기』, 용주연구회, 2014.

19) 趙綱, 『祭金翎衛念祖文』, 『龍洲遺稿』卷13, “念昔同君, 避賊果嶽. 餐雪拾橡, 暫時性命.”

써 그려냈다. 전쟁이 수많은 인명을 앗아갈 뿐만 아니라 살아남은 자들을 병들게 한다는 것은 상식의 차원에 속하는 사실일 터이나, 위의 인용문은 자신의 병에 대한 묘사를 통해 그런 점을 꺾진하게 보여주고 있다 하겠다.

그런데 해당 인용문은 1637년 8월, 조경이 사간(司諫)에 제수된 데 대해 사양하는 뜻을 밝힌 상소문의 일부이다. 몸과 질병이라는 측면에서 전란의 경험과 그 결과를 묘화한 이 글이 국왕을 대상으로 한 공적 문서인 상소문, 그 가운데서도 벼슬을 그만두기 위해 국왕을 설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직상소라는 점은 일견 흥미롭다. 이는 조경의 선배에 해당하는 관료들이 쓴 상소문에서 흔히 발견되는 ‘칭병’(稱病)의 수사법(修辭法)과 비교해 보았을 때 사뭇 다르기에 우선 그러하다.

사직상소는 관직을 제수하는 왕에게 거절의 의사를 표명하는 글이다. 사직상소가 표방하는 목적인 ‘사직’ 자체는 신하로서 왕을 견제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으로 간주되며 언외의 목표를 지니게 되고, 상소 가운데 언급되는 건강의 악화, 부모 봉양 등은 사직의 표면적인 이유, 즉 구실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다.²⁰⁾ 이 맥락 안에서 ‘건강의 악화’라는 하나의 구실은 ‘칭병’(稱病)이라는 특유의 수사와 연결된다. 칭병이란 병이 있다고 핑계를 댄다는 뜻의 말로, ‘칭질’(稱疾) 혹은 ‘피병’이라고도 한다. 이 말은 사직상소에 적용되어 하나의 전형적인 국면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사직상소의 칭병은 어떤 면에서 자신이 공직을 그만두고자 하는 이유를 사생활의 차원으로 돌려버림으로써 은폐하려는 의도의 반영이라 할 수 있으며, 현재까지 통용되는 사직서의 문구인 ‘일신상의 이유’라는 상투적이고도 모호한 말과 맥이 닿아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이런 점과 관련하여 이이(李珥, 1536~1584)의 다음 언급은 사직상소에서 칭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예에 해당한다.

이지함(李之菡)이 와서 나를 만났다. 명사들이 많이 모인 중에 이지함이 좌우를 돌아보며 이렇게 큰소리를 쳤다. “성현(聖賢)이 한 일이 나중에 자못 폐단이 났소.” 나는 웃으며 말했다. “무슨 기담(奇談)을 이렇게까지 하시오. 이러니 존장

20) 송혁기, 『사직상소문의 문학적 연구를 위한 일고』, 『한국한문학회연구』 48, 한국한문학회, 2011.

(尊丈)께서 『장자』에 필적하는 책 한 권 쓰기를 내가 늘 바라다오.” 이지함이 웃으며 말했다. “공자는 아픈 핑계를 대어 유비(孺悲)를 안 만났고, 맹자는 아픈 핑계를 대어 제왕(齊王)이 부르는데도 가지 않았소. 그래서 후세의 선비들이 아픈 데가 없으면서도 아프다고 핑계를 대는 일이 많았대오. 대체로 아픈 핑계를 대어 남을 속이는 것은 인가(人家)의 게으른 노비들이나 하는 짓인데, 선비로서 차마 이런 짓을 하면서 공자·맹자가 하던 일이라 하니, 어찌 성현이 한 일이 나중에 폐단이 된 게 아니겠소. 내가 어찌 장주(莊周)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소?” 좌중의 사람들이 모두 웃었다. 당시 내가 질병 핑계를 대어 대사간을 사직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지함이 그렇게 말한 것이었다.²¹⁾

위의 인용문은 1578년(선조 11) 3월에 있었던 일을 적은 것으로, 이이가 상경하여 왕을 알현하고 대사간을 사직하는 뜻을 밝힌 직후의 상황에 해당한다. 여기서의 주된 화제는 이이가 청병사직한 사건인데, 지인과 농담을 나누고 이 농담에 좌중이 웃음을 터뜨리는 흥성스러운 분위기로 보아 이이는 실제로 병이 깊은 것 같지 않고, 주변 사람들 역시 그의 청병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 듯하다. 또한 ‘아픈 데가 없으면서도 아프다고 핑계를 댄다’는 이지함의 풍자와 이 풍자에 대해 ‘질병 핑계를 대어 대사간을 사직하려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라고 수용하는 이이의 태도에서 이이의 청병이 그야말로 피병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때 이이는 실제로 사직상소를 올린 바 있다. 『율곡전서』 권6에 실린 「대사간을 사직하는 상소」(辭大司諫疏)가 바로 그것이다. “엎드려 아뢰옵건대 소신(小臣)은 재주가 허술하고 병이 깊어 이치상 물러나는 게 합당합니다”²²⁾라는 구절로 시작되는 이 글에서 이이는 자신이 쓸모가 없다는 것을 사직의 주된 이유로 들며, 그 세부 조목을 다시 네 가지 제시했는데 그 네 번째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질병이다. 여기가 바로 이 사직상소의 청병 부분이라 할 수 있는데, 이에 따르면 이이는 타고난 기질이 잔약하여

21) 李珣, 『石潭日記』 卷下 萬曆六年 戊寅, “李之藹見珣, 名士多會, 之藹顧左右大言曰: ‘聖賢所爲, 頗作後弊! 珣笑曰: ‘有何奇談, 乃至於此? 我當願尊丈作一書以配『莊子』.’ 之藹笑曰: ‘孔子稱疾不見孺悲, 孟子稱疾不就齊王之召, 故後世之士, 多以無疾稱有疾. 夫稱疾欺人, 乃人家怠奴懶婢之所爲, 而爲士者忍爲之, 乃托於孔孟之跡, 豈非聖賢之所爲作後日之弊乎? 我豈作莊周之說乎?’ 一坐皆笑, 時珣辭疾, 將免大諫, 故之藹云然.”

22) 李珣, 『辭大司諫疏』, 『栗谷全書』 卷6, “伏以小臣才疏病深, 理合休退.”

병이 몸에서 떠나지 않으며, 한가히 지내며 조리를 해야지 그나마 몸을 부지할 수 있고, 한 번 앓을 쓰고 움직이면 그때마다 여러 병증이 발생하여 해가 가도록 조심하고 조섭해도 회복할 수 없다²³⁾고 했다. 체질이 허약하고 여러 병증이 잠복해 있는 상태라는 것인데, 이 말은 앞서 언급한 조정의 사직상소에 나타난 질병의 묘사와 비교해 본다면 구체성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고 구색을 맞추기 위해 나온 수사(修辭)라는 혐의가 짙다.

이런 점은 이황(李滉, 1501~1570)의 경우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황은 1558년(명종 13)에 올린 한 사직상소에서 자신이 벼슬에 나아가는 것이 의(義)에 합당하지 못한 이유가 다섯 가지 있다 했고, 그 중 둘째로 ‘병으로 폐인이 되어 하는 일 없이 녹만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들었다.²⁴⁾ 그는 이 점에 대해 ‘어려서 병에 걸려 기혈(氣血)이 시들시들하고 허약하여 결국 고질이 되었고, 도중에 친상(親喪)을 당해 심질(心疾)이 더해져서 여러 번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가 겨우 소생한지라 무리를 하면 병이 번번이 재발한다’²⁵⁾고 상술하였다. 이황의 이 말은 어려서 병을 앓은 것이 난치병이 되었고 친상으로 인한 심리적 충격 때문에 지병이 악화되었다 함으로써 자신의 질병에 대해 개인사의 맥락에서 좀 더 설득력 있게 접근하고 있어, 이이의 것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구체적이라는 인상을 준다. 이는 아마도 명(明) 주권(朱權)의 『구선활인심법』(臞仙活人心法)을 손수 초록하여 『활인심방』(活人心方)을 편찬한 데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질병과 양생(養生)에 대해 폭넓은 관심과 지식을 지니고 있었던 이황의 한 면모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그럼에도 이황이 말한 병증은 1558년에 사직상소를 올릴 당시의 특정한 상황을 표현한 것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생애에 대체적으로 해당하는 말이고

23) 李珥, 『辭大司諫疏』, 『栗谷全書』卷6, 受氣孱弱, 病不離身, 居間調養, 稍得支持, 一有勞動, 輒發衆證, 終年愼攝而不足, 一日戕敗而有餘, 其不能驅馳鞅掌, 報效涓埃者較然矣, 其不可用者四也.

24) 李滉, 『戊午辭職疏』, 『退溪集』卷6, “何謂義? 事之宜也. 然則諱愚竊位, 可謂宜乎? 病廢尸祿, 可謂宜乎? 虛名欺世, 可謂宜乎? 知非冒進, 可謂宜乎? 不職不退, 可謂宜乎? 持此五不宜, 以立本朝, 其於爲臣之義, 何如也? 故臣之不敢進, 祇欲成就一義字而已.”

25) 李滉, 『戊午辭職疏』, 『退溪集』卷6, 夙嬰疾病, 氣血凋虛, 遂至於沈痼難治, 因此失學, 年過三十, 僥倖科第, 中遭喪棘, 加以心疾, 屢瀕死地. 僅而得甦之後, 其患往復, 一有勞煩, 輒復發動, 方寸不安, 其職將何以效匪躬而應世務乎?

이 점에서 ‘기질이 잔약하여 병이 늘 잠복해 있다’고 한 이이의 말과 거리가 멀지 않다. 또한 ‘재발의 가능성’을 언급한다든가 다섯 가지의 이유 가운데 질병을 포함시키고 있는 어법은 이이의 사직상소에 나타난 칭병의 수사법과 상통하는 점이 더 많다. 이황과 이이의 사직상소에서 질병에 대한 언급은 ‘칭병’으로서의 성격이 짙고 따라서 그것을 사직의 중요한 이유를 담은 실다운 말이라 보기에는 무리가 따를 것이다.

그런데 17세기의 관료문인인 조경의 사직상소에 나타난 개인의 질병에 대한 언급은 한 세기 앞의 선배들이 사용한 칭병의 수사법과는 달리 그 글을 쓸 당시 자신의 상태를 즉시적이고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칭병의 허언(虛言)으로 간주할 수 없는 측면이 엄연히 존재한다. 이제 이와 같이 질병에 접근하는 조경의 어법이 위치하고 있는 지점을 좀 더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그와 더 가까운 세대에 해당하는 관료문인들의 사직상소에서 몇 가지 예를 더 찾아보고자 한다. 다음은 조경의 선배에 해당하는²⁶⁾ 이항복(李恒福, 1556~1618)이 1599년(선조 32), 재상의 직에 나아갈 수 없다는 뜻을 밝힌 소차(疏筭)이다.

신은 처음에 담질(痰疾)²⁷⁾을 얻었다가 심병(心病)이 겹치자, 위기(胃氣)와 폐기(肺氣)까지 차례로 모두 병들어서 형용(形容)은 수척하여 뼈만 남고 신기(神氣)는 식은 재처럼 싸늘해져 버렸습니다. 의원의 말에 따르자면 ‘이 병은 뜨거운 여름 날씨가 맞지 않아서 그런 것이니 서늘한 가을이 되면 자연히 회복되어 건강해질 것’이라 하였지만, 이제 다섯 달이 지나 가을기운이 이미 높고 추운 날씨가 닥쳐 오려 하는데도 더하기만 하고 덜할 줄을 모르면서 병이 답답하게 이어진 것이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그랬더니 의원은 또 ‘담(痰)이 풍한(風寒)을 만나면 발작하여 반드시 위중해지니 내년 봄에 날씨가 따뜻하게 풀리면 자연히 회복되어 건강해질 것’이라고 하였습디만 서늘한 가을에 시험해 보았어도 이미 효험이 없었으니 내년 봄에 회복된다는 것을 또 어찌 기약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지난달부터는 피를 토하는 증세가 매우 위중합니다. 처음에 거드랑이 밑에서부터 골골 소리가 나면서 마치 조수처럼 들끓어 올라와 목구멍 사이에 꼭 막혀서 기(氣)와 함께 토해 내면 시뻘건 선혈이 항상 한 그릇에 가득합니다. 이

26) 조경은 약관의 나이에 문장으로 자임하였는데, 이 때 이항복의 허어를 받은 바 있다.

27) 담질(痰疾): 인체의 기혈이 순조롭게 운행되지 않아서 장부의 진액이 일정 부위에 몰려 걸쭉하고 탁하게 된 것. 일련의 질병 때 병적으로 생기며, 병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렇게 토하고 나면 현기증이 나서 땅에 쓰러졌다가 한참 뒤에야 깨어나곤 합니다. 이런 증세는 혹 하루 간격으로 발작하기도 하고 혹은 며칠 간격으로 발작하기도 하며, 또 혹은 하혈을 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혹 5, 6일 만에 한 번씩 발작합니다. 그래서 심기가 극도로 허약하여 늘 두려워서 가슴이 두근거리며 뛰는 증세가 특히 심합니다.²⁸⁾

이항복은 애초에 병 때문에 벼슬에 나아가지 못한다고 상소를 올렸으나 국왕이 이에 대해 ‘칭질’(稱疾)이라 여기므로 다시 상소를 올려 자신의 병을 제대로 진달하고자 한다 하여²⁹⁾ 이 글을 쓴 동기를 이미 밝혔거니와, 담질(痰疾)에 심병(心病)이 겹친 결과 건강이 극도로 손상되어 의원의 진료를 계속 받았고, 의원의 처방이 별 도움이 되지 못해 결국 토혈과 하혈을 하기에 이르렀다는 등 병증이 악화된 경과를 소상히 밝히고 있는 위의 인용문만 보아도 그의 소차가 칭병의 허언이 아니라는 점은 쉽게 간파할 수 있다. 또한 옆구리에서 꿀럭꿀럭 소리가 나는 조짐부터 하여 기어이 시뻘건 선혈을 한 사발이나 토하기까지의 과정을 적은 대목은, 앞서 동상 때문에 피부가 얼어 터지고 손톱과 발톱이 빠지는 양상을 기록한 조경의 상소에서 본 것과 유사하게 그로테스크한 느낌을 준다. 이런 면에서 조경과 이항복의 사직상소는 38년의 시간적 간극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성격을 공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한편 이이는 이항복보다 스무 살 연장이고, 앞서 언급한 이이의 사직상소 역시 이항복의 위 글보다 20년 전에 씌어진 것이므로 그들의 두 글이 시대적으로 대단히 큰 간격을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조경과 이항복의 질병 묘사를 같은 유형으로 범주화하며 이이의 그것과 구분하게 할 만한 계기는 어디서 찾아야 할 것인가. 그것은 우선 전쟁의 경험이 아닐까

28) 李恒福, 『己亥秋, 再入相辭免劄』, 『白沙集』卷5, “臣初得痰疾, 加之心病, 胃氣肺氣, 次第俱病, 形容骨立, 神氣灰冷. 醫云: ‘病當夏熱, 時候不適, 若待秋涼, 自然蘇健.’ 今過五月, 秋氣已高, 寒候已逼, 有加無減, 病鬱而沉, 至于今日, 則又云: ‘痰遇風寒, 發作必重, 若待明春, 天暖氣舒, 自然蘇健.’ 試之秋涼, 已無其效, 待春而蘇, 何可卜期? 况自前月吐血甚重, 始自脇下, 汨汨有聲, 如潮沸上, 塞于喉間, 與氣俱吐, 則猩紅濃血, 常滿一器. 既吐之後, 眩暈仆地, 良久乃甦. 如是者或間日而作, 或過數日而作. 又或下血, 或間五六日一作, 心氣極虛, 怔忡驚悸, 特爲尤甚.”

29) 李恒福, 『己亥秋, 再入相辭免劄』, “賤臣得病之由, 今日難治之狀, 臣之前劄, 略已陳達矣. 後數月, 續見聖旨, 頗以臣僚稱疾不事事爲教, 臣奉讀再三, 身如坐針, 恨不卽死. 抑無乃螻蟻賤病, 或未能悉達於聖聰也, 欲出則疾病如是, 欲辭則臣罪益重, 不得不再有所陳, 伏願聖明少垂察焉.”

한다. 앞서 조경의 사직상소는 병자호란 직후인 1637년에 쓴 것이고, 이항복의 소차는 임진왜란이 종결된 이듬해인 1599년에 쓴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전쟁의 경험이 생존자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삶과 육신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수반하고, 결국 그와 같은 변화가 글쓰기에 표현되리라는 전제하에 필자는 사직상소에 나타나는 질병과 몸에 대한 특정한 표현방식을 우선 전란의 경험과 연관짓고자 하는 것이다.

실제로 임진왜란 이후 병자호란을 전후한 시기 문인관료들의 사직 상소 가운데는 조경과 이항복의 예에서처럼 질병의 표현에 있어서 특정한 문제를 보이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 이를테면 신흘(申欽)은 부제학(副提學)을 사직하는 소차에서 누적된 풍한(風寒: 감기), 편두통, 청각장애, 뇌종(腦腫: 머리의 浮腫인 듯함)과 두부(頭部) 출혈, 학질(瘡疾) 등 당시 자신이 겪고 있던 병의 세목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병증을 묘사했는데,³⁰⁾ 그가 홍문관 부제학(弘文館副提學)에 제수된 것이 1601년(선조 34)의 일이므로 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 역시 임진왜란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은 때에 해당한다. 또한 신흘처럼 알려진 문인은 아니지만 조경이 존장(尊丈)으로 섬겼던 정운(鄭蘊, 1569~1641)과 정구(鄭逵, 1543~1620)의 사직 상소에서도 역시 신흘의 경우와 유사하게 당시 자신의 건강 상태와 질병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예가 보인다. 먼저 정운은 1627년 대사간(大司諫)을 사직한 상소에서, 말을 타다 낙상하여 왼쪽 어깨뼈가 부러져 잘 붙지 않아 찬바람 불 때나 비가 올 때 몹시 쭈신다고 하며 혼자서는 망건을 쓰지조차 힘들어 사람 축에 들지 못하는 폐인이 되었다고 했고,³¹⁾ 정구는 1608년 대사헌(大司憲)을 사직한 상소에서, 오래 묵은 담질(痰疾)과 호흡 곤란, 해수(咳嗽), 비위(脾胃)의 기능 저하, 복통, 허리 통증, 온 몸 뼈마디가 시큰거리는 증세 등 자신의 병증을 나열했다.³²⁾

30) 申欽, 『辭副提學筭』, 『象村稿』卷31, “伏以臣本以殘病之人, 自初春積傷風寒, 轉成偏頭痛耳聾等證, 伏蒙天恩, 許處閑地, 累月調治, 而沈綿不瘳, 進退無常, 蓋由昔年重得腦腫, 頭顱失血, 左邊偏虛之致, 只此一病, 已非時月之可愈, 而夏月以來, 脾胃內傷, 肢體外損, 仍患似瘧之疾, 尋常之間, 長伏枕席.”

31) 鄭蘊, 『辭大司諫疏』, 『桐溪集』卷3, “偶然騎馬, 便致落傷, 左臂連項之骨, 違折突出, 今既累朔, 接續無期, 行步坐臥, 動相牽引, 或觸風寒, 或值陰雨, 呻痛之苦, 不減於初, 梳頭斂髮, 必待人手, 自初至今, 未嘗着網巾, 不得已着之, 則亦倩人手, 自分廢棄, 不齒人類.”

32) 鄭逵, 『辭大司憲疏』, 『寒岡集』卷2, “蓋臣之所患, 非偶然感冒發於朝夕之比, 臣年今六十有六

위에서 언급한 외에도 양란(兩亂) 즈음과 그 이후의 사직 상소 중에는 그 내용의 대부분을 자신의 병증을 시시콜콜히 묘사하는 데 할애하고 있는 예들이 상당수 보인다. 신희(申熙)와 장유(張維) 등 잘 알려진 문장가들은 물론 문학연구의 대상으로는 잘 알려지지 않은 문인들까지 상당수의 관료문인들이 스스로 겪고 있는 질병의 명목을 자신의 사직 상소에 언급하고 세부 증상을 진술했다. 가장 공적인 글로 기대되는 상소문에 신병(身病)으로 대표되는 개인사의 문제가 중요하게 언급되어 있는 데다 그 진술 양상이 놀랄 정도로 구체성을 띠고 있어, 여타의 시(詩)나 산문에서는 사직상소에서 의 것과 비슷한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이 사실은 무엇을 의미할 수 있는가. 이는 우선 한문학의 문체와 작가라는 두 가지 연구영역에서 주목할 만한 현상으로 보인다. 몸과 관련하여 그로테스크할 정도로 비근한 묘사의 예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한국 한문학의 범주 안에서 사직 상소의 질병 묘사가 낯다른 문체적 경향을 보여준다는 점, 그리고 한문학 작가 연구를 할 때 필수적인 해당 작가의 개인사와 질병, 육체적 상태에 대한 가장 구체적인 언급을 사직 상소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설명은 왜 사직상소에 이러한 문제가 나타나는지, 그리고 조정이라는 작가의 특수성은 이러한 문체와 어떤 관련을 맺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수궁할 만한 답을 주지 못한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조정의 동시대 문인들이 쓴 사직상소의 예를 몇 가지 더 살펴보기로 한다. 다음은 장유(張維)가 동지춘추관사(同知春秋館事)를 사직하며 쓴 상소이다.

삼가 살피건대, 신은 태어날 때부터 체질이 유약하기만 하였는데, 겨우 약관(弱冠)의 나이를 넘기면서 벌써 병으로 쇠약해져 장기간 약을 먹으며 목숨을 지탱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경신년 연간에는 변혈(便血) 증세를 중하게 앓아 백여 일 동안이나 녹초가 되었는데, 그때 쏟아 낸 피가 거의 1곡(斛)여에 이르렀으므로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숨이 떨어질 뻔하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 뒤로 병석에 누워 시름시름 앓으면서 죽음과 벗을 삼았는데, 그렇게 3년을 지내고 나서 계해년 봄에 와서야 비로소 조금 증상이 나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진원

歲, 自少受氣虛薄, 爲百病所萃之身, 呻吟痛楚, 未嘗有一日之安. 未及五十, 衰白已甚, 今迫七十, 枯瘁轉劇. 頑痰塞胸, 則呼吸若絕, 咳嗽劇發, 則五內如翻, 脾胃大敗, 臍腹痛, 腰脊之疼, 肢節之酸, 皆所甚焉, 而此外煩不敢仰瀆者, 證目實多.”

(眞元)이 모두 빠져 나가 다시 정상으로 회복되지 않은 탓으로 몸은 버쩍 마르고 얼굴색은 누렇게 뜬 가운데 가래가 끓어 숨통을 막는 바람에 말도 제대로 이어 가지를 못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신만 항상 병인(病人)으로 자처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신의 안색을 한 번만 보아도 온전한 인간이 못 된다는 것을 금방 알아차리곤 합니다.³³⁾

장유가 평생 질병에 시달려 약봉지를 끼고 살았다는 점은 시(詩)와 같은 그의 여타 작품에도 익히 나타난 점이지만 그 증상으로 변혈(便血) 등이 있었다는 것과 같은 구체적 사항은 그가 올린 일련의 사직 상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장유는 병자호란 직후 질병과 친상(親喪)으로 인한 충격 때문에 직무 수행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4개월 동안 18차례나 상소를 올린 끝에 겨우 사직을 허락받는다. 그리고 다시 4개월이 지난 후 그는 결국 병이 악화되어 세상을 떠난다.³⁴⁾ 그에게 사직은 군신관계에서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었다 하겠다. 앞서의 예를 통해 양란 즈음과 그 이후 사직상소에 나타난 질병의 언급이 그 이전의 칭병과 성격을 달리함을 조금씩 살펴 왔거니와, 연거푸 사직상소를 올리다 결국 병사한 장유의 처지는 사직상소에서 언급된 개인의 질병이 진정으로 사직의 이유가 된 상황을 대변해 준다. 달리 말해 사직상소의 질병 언급은 이제 칭병의 수사가 아니라 개인의 실제 처지를 표현한 말이라는 점에서 진정성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 진정성의 표현은 먼저, 사직상소가 원래 지니는 실용성, 즉 사직을 위해 국왕을 설득하는 수단이 된다는 측면과 맥이 닿는다. 즉 자신이 병들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정상(情狀)을 가능한 한 사실에 가깝게 표현하기 위해 첨부하는 일종의 자가진단서로서의 성격이다. 그리고 다른 한편 이 진단서는 사직상소 특유의 수사인 자기비하의 어법-사직상소에서는 자신의 쓸모없음을 강조하는 태도를 흔히 찾아볼 수 있다-

33) 張維, 『同知春秋乞遞疏』, 『谿谷集』 卷17, “伏以臣稟賦薄弱, 總踰弱冠, 已抱羸疾, 長以藥餌爲命. 曾在庚申年間, 重患便血之證, 委頓百許日, 所失血幾至斛餘. 氣竭血盡, 絕而復甦. 自是之後, 沈淹床席, 與死爲隣. 歷三歲至癸亥春, 始得少愈, 然而眞元虛脫, 未能復常, 肌肉消瘦, 面色萎黃, 痰涎壅塞, 言語澁滯. 不唯臣常以病人自處, 卽人一見顏貌, 便知其非完人也.”

34) 송혁기, 앞의 글, 151면.

과 연결되어 자신의 질병과 신체에 대한 비근한 묘사라는 특유의 문체를 얻게 되는바 이 점은 지금껏 살펴본 바와 같다. 장유는 어떻게 보면 윗사람이 과안(過眼)할 글에 담기 어려운 변혈이라는 소재를 언급하고 게다가 그 양이 1곡(斛)³⁵이나 되었다 하여 자신의 극한 상황을 강조한 진단서로 수신자를 압박한 셈이다.

한편 진정을 토로한 위 인용문을 통해 장유가 병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낄 수는 있지만, 비전문가의 입장에서 그의 병이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그다지 알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런데 같은 진단서로서의 성격을 띤 사직 상소로서 조경의 글은 동시대인인 장유의 그것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다음은 조경이 1644년(인조 22) 4월 28일 형조 참의에 제수되고 나서 그 엿새 뒤에 올린 사직 상소의 일부이다.

엿드려 아뢰옵건대 소신은 지난 1월에 세자께서 환궁하실 때 홍주(洪州)에서 올라와 성문 밖에서 공손히 영접했습니다. 그날 얼굴에 종기가 나서 30여 일을 아파 고생하느라 거의 죽다가 요행히 소생했습니다. 그런데 또 4월 15일에 얼굴의 종기가 재발하여 독기가 단단히 엉기고 통증이 몹시 심한 것이 전보다 훨씬 더했는데, 침이나 약도 전혀 효과가 없어 그저 죽을 날만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밤낮 없는 통증을 열흘 남짓 겪은 뒤에야 비로소 명율이 저서 침으로 터뜨려 요행히 되살아났습니다만 고품이 날마다 흘러내리고 부기는 아직 한창이며 한 치나 되는 창혈(瘡穴)은 온전히 아물 기약이 없습니다. 게다가 음식도 전혀 먹지 못하여 숨 쉬는 것이 실낱 같으니 의사들이 와서 보고는 모두들 위급하게 여깁니다. 신이 살아날지 죽을지는 아직 분명치 않습니다.³⁶

인용문에 언급된 얼굴의 종기는 원문이 ‘면종’(面腫)이다. 이는 얼굴에 난 종기가 빨갱게 부어오르는 것으로, 그 열기가 뇌에 직접 미치게 되면 뇌막염이 되기도 하는 등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소홀히 여겨서는 곤란한 질

35) 곡(斛): 이 단위는 최소한 10말, 많게는 15말의 양을 가리키는 말이다.

36) 趙綱, 『辭刑曹參議疏』, 『龍洲遺稿』卷6, “伏以小臣曾於正月世子回鑾時, 自洪州上來, 郊外祇迎. 其日即發面腫, 苦痛三十餘日, 幾死幸蘇. 又於四月十五日, 面腫復發, 毒氣之堅凝, 痛勢之緊重, 有加於前, 鍼藥百無一效, 只待性命之盡矣. 罔晝夜疼痛, 旬有餘日後, 始得成膿鍼破, 僥倖回生, 而膿汁日流, 浮氣尙盛, 瘡穴沒寸, 完合無期, 加以飲啄專廢, 氣息如縷, 醫師之來見者, 無不危之. 其生其死, 蓋尙未分也.”

병으로 한의학에서 언급된다. 인용문은 우선 면종이 것처럼 무서운 질병이라는 점을 자신의 경험을 통해 잘 알려주고 있다. 한 가지 더 눈에 띄는 점은, 자신의 발병 시점을 소현세자가 심양으로부터 잠깐 귀국하였던 때라고 하여 구체적으로 적고, 그 뒤 30여 일을 고생한 끝에 겨우 나왔다가 형조 참의에 제수되기 열흘 전 쯤 되는 때에 병이 재발하여 지금까지 낫지 않고 있다 하여, 병의 진행상황을 날짜에 따라 밝힌 것이다. 이는 그 정밀한 태도로 인해 일종의 병록(病錄)³⁷⁾과 같은 인상을 주는데, 이와 같은 서술의 의도란 자신이 벼슬에 나아갈 수 없는 상황임을 수신자가 가감 없이 받아들여도록 하는 장치로 삼자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여기 덧붙여 종기가 진행되어 명울이 지고 그 명울을 터뜨려 고름을 짜냈으며, 이후 순탄하게 낫지 않아 고름이 계속 흐르고 부기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하여 병의 양상을 몹시 구체적으로 적었는데, 그와 같은 극도의 사실적인 묘사방식은 창혈(瘡血)이 직경 1촌(=3cm)이라 한 데서 정점에 이른다. 이는 앞서 장유의 사직 상소에 언급된 ‘변혈 1푼’이 반드시 정확한 사실을 반영한 말은 아닐 것이라는 점과는 사뭇 다르다. 무슨 병을 앓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병명과 증상, 원인과 경과를 소상히 밝힌 조경의 글이 장유의 것에 비해 더 요령이 있고 정확하며 그것은 병록의 문체를 차용한 결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병록’의 문체는 앞서 양란 이전 사직 상소에서 흔히 발견되었던 ‘칭병’의 어법과는 대척점에 있다 하겠으며 질병에 접근하는 태도가 상당히 전문화되었음을 보여주는 징후이다. 전란과 그에 따른 질병의 경험이 신병(身病)에 주목하는 글쓰기를 낳았다면 그 문체는 병록에서 보이는 것처럼 인접 학문인 의학에서의 발전과 변화를 반영한 결과라 하겠다. 이 점은 필자의 전문 분야가 아니므로 상세히 논하기는 어렵지만 조경의 당대인 1613년에 내의원(內醫院)의 주관으로 『동의보감』(東醫寶鑑)의 간행 및 보급이 이루어진 것도 그와 같은 조선 의학의 발전상을 보여주는 한 지표이고, 사(士) 계층이 다시 그와 같은 의서를 열독하며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 보아 큰 잘못은 없을 것이다. 한 의학사가는 15세기부터 17세기까지 150년 사이에 이루어진 조선 사회의 의료화 과정을 언급하며, 이 시기에 이르러

37) 병록(病錄): 말 그대로 질병의 양상과 경과를 기록한 글인데, 주로 의원에게 보여서 약 처방 등 진료의 참고자료로 삼도록 하려는 의도에서 작성되었다.

전문의원이 아니라 일반인에게 실제 의학이론과 처방을 알릴 정도로 사회적으로 의학지식이 대중화되었다 했고, 이런 현상은 같은 시기에 진행된 사림층의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라 보았는데 같은 견지에서 참고할 만하다.³⁸⁾

이와 같은 의료지식의 보편화라는 시대적 흐름 가운데, 조경은 어떤 위치에 있었을까. 이 점과 관련하여 이정구(李廷龜)가 약방 제조(藥房提調) 등의 여러 겸직을 사직하며 쓴 상소문의 일부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내국(內局)은 사무가 몹시 긴급(緊重)하므로 더욱이 하루라도 비워 둘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신은 물러나 칩거하는 동안 질병이 오래 낫지 않았고 예전에 앓던 왼쪽 무릎의 건삭(蹇澁: 순조롭지 못하고 걸끄러움. 꺾꺾함)한 증세가 추위를 타고 재발하여, 온몸에 침을 놓고 뜸을 뜬 지 이제 며칠이나 되었는데도 다리를 더욱 절룩거리게 되어 남의 도움을 받아야 거동할 수 있습니다. 오래 묵은 담(痰)이 가슴을 꼭 막아서 밤에는 누울 수도 없고 때로 기운이 막혀 실낱같은 숨만 이어 가고 있습니다. 모두 오래 원기를 손상한 나머지 생긴 병이라 약을 써도 효험이 없습니다. 신의 오늘날 답답하고 절박한 사정과 낭패한 종적은 상상에서도 이미 환히 아시리라 생각되니, 굳이 신이 너저분하게 아뢰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게다가 용병(癘病: 노인성 질환)의 증상이 또 이와 같아 은혜로운 제수(除授)에 사은하지도 못한 채 거만하게 소장만 올리고 있자니 신자(臣子)의 분의(分義)에 극히 외람됩니다.³⁹⁾

앞서 이항복의 글에서는 자신의 증상에 대해 소상히 진술하고, 의원의 진료에 의지하면서도 의원을 믿지 못하는 태도가 나타나 그 글이 환자의 입장에서 쓴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정구의 이 글은 왼쪽 무릎의 관절염으로 추정되는 질병과 오래 묵은 담질 등을 진술하는 방식에서는 이항복의 글과 상통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 원인에 대해 ‘오래 원기가

38) 신동원, 『조선 사람 허준』, 한겨레신문사, 2001. 266면.

39) 李廷龜, 『三度呈辭只遞宗伯文衡後又辭兼帶及知樞疏』, 『月沙集』卷29, “內局則事務緊重, 尤不可一日曠廢, 而臣於屏伏之中, 疾病沈痼, 舊患左膝蹇澁之症, 乘涼重發, 遍身針灸, 今已多日, 跛躄轉甚, 起動須人, 頑痰塞胸, 夜不能臥, 有時閉絕, 危喘如織, 皆出積傷, 藥餌無效. 臣之今日悶迫情事, 狼狽蹤迹, 聖明想已下燭, 必不待臣之煩瀆, 而癘病之狀, 又復如此, 恩除未謝, 假蹇陳疏, 臣子分義, 極爲猥濫.”

손상된 결과'라 하고 제증상에 대해 노인성 질환으로 판단하고 있는 데서 모종의 전문적 식견이 감지된다. 그리고 질병의 문제에 있어서 이정구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그가 사직하고자 한 부서가 내국(內局)이었다는 점을 단서로 삼아 접근할 수 있다. 내국은 내의원으로서 실제 이곳에서 진료를 담당하는 것은 어의(御醫)라 불리우는 이들이었으나, 이 기관의 책임자로서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제조(提調)는 문신 가운데 의약(醫藥)에 밝은 이들이 겸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내국 제조로 있으면서 허준(許浚, 1539~1615)의 『신찬벽운방』(新纂辟瘟方) 편찬에 관여하여 그 서문(序文)을 쓰고, 이어 『동의보감』의 서문까지 쓴 이정구는, 질병과 의약에 대해 상당한 식견을 지닌 관료문인이라 보아 틀림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오래 맡고 있던 내국 제조의 임무를 사직하며 자신의 병증을 진단한 글을 보면, 자신의 병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음을 짐작케 되는데 이와 같은 그의 식견은 그가 지닌 전문성의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비슷한 견지에서 조경에게도 역시 특기할 만한 점이 있다. 실제 조경의 이력이나 그 개인사에 대한 언급을 참조하면, 그가 상당한 의료지식을 지니고 있었을 것이라는 추정을 할 수 있다. 우선 조경의 아들인 조위봉이 쓴 부친에 대한 기록인 『언행총록』(言行總錄)에 따르면 조경은 일찍이 양생설(養生說)에 조예가 깊었고 이에 따라 섭생에 힘쓰고 호흡법을 실행한바 체질이 약하고 질병이 많았음에도 노년에 이르도록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다 했다.⁴⁰⁾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양생'이라는 말인데 이는 질병이 발생하기 전에 몸과 마음을 잘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실행되는 건강수칙과 관련된 개념이다. 양생은 실제 동아시아 의학에서 하나의 중요한 범주로 간주되어 왔으며 심지어 의학이 양생의 하위 범주에 놓이기도 하는데 이 점은 조경의 당대에 보급되기 시작했던 『동의보감』에서도 어느 정도 찾아볼 수 있는 면모다. 또한 '유의'(儒醫)의 한 사람으로 평가되기도 하는 이황(李滉)의 경우에도 그의 의학적 식견이 집중되고 있는 곳은 도인술로 대표되는 양생술이다. 따라서 조경이 양생설에 조예가 깊었다는 그 아들의 언급은 그가 의학에 조예가 깊었음을 보여주는 한 증거가 된다.

다음으로 조경은 이정구와 마찬가지로 내국 제조의 책임을 맡은 적이 있

40) 조위봉, 『言行總錄』

다. 조경은 1649년(인조 27)에 내국 제조로 있었는데 이 시점은 인조(仁祖)의 사망이 임박하여 그 환후가 몹시 위중하던 때였다. 조경은 이처럼 중차대한 시점에 매일같이 내국에 입직하여 인조의 환후를 돌보고 약을 조제하는 일을 감독하였던 것이며 이 역시 그가 의학에 상당한 식견을 가졌음을 방증하는 자료가 된다.

살펴본 바와 같이 조경은 의학에 있어서 상당한 전문성을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질병에 대한 그의 언급은 어떤 의미에서 의사의 객관적인 관찰에 해당하는 면모를 보여준다. 이 점은 그가 사직상소에서 자신의 질병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질병에 대해 언급하는 태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엿드려 아뢰옵건대 소신에게는 일흔이 다 된 어머니 있습니다. 부창증(浮脹症)에 걸린 지 이제 11년이 되었는데 온 몸 사지에 붓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 증세는 오래 봄과 여름 사이의 환절기를 타고 심해지는데, 심해질 경우 몸을 뒤척이거나 움직일 수조차 없고 호흡이 가빠지게 되어, 밤에 눈도 붙이지 못하고 음식도 전혀 들지 못해 거의 목숨을 건지지 못할 것 같았던 적이 여러 번입니다. 신이 그 사이 여러 차례 조정의 명을 어겼던 것은 잠시라도 차마 어머니 곁을 떠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 오늘 신의 집 종이 와서 어머니의 신변에 대한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집안사람들이 전염병에 걸렸다가 한동안 잠잠해졌었는데 그 뒤 또 전염병이 일어나 크고 작은 노복들이 모두 앓고 있으며, 신의 어머니는 겨우 몸을 피하여 누추한 집에서 움츠러 지내고 있는데, 음식을 드는 데 절도를 잃어 토사곽란을 하는 데다, 부창증이 더치고 온몸에 구급(拘急)⁴¹⁾ 증세까지 있어 괴로움을 감당할 수 없다 합니다. 신은 답답하고 애가 타서 어쩔 줄 모르겠습니다.⁴²⁾

사직상소에 주로 언급되는 개인사가 질병과 부모 봉양의 문제라는 점을

41) 구급(拘急): 팔다리나 몸이 오그라들면서 활동에 지장을 주는 증세 팔다리나 몸이 오그라들면서 활동에 지장을 주는 증세. 흔히 팔다리와 양옆구리 아랫배 등에서 나타난다.

42) 趙綱, 『請觀病親疏』, 『龍洲遺稿』卷6, “伏以小臣有母年迫七十, 得浮脹之疾, 于今十有一年, 一身四末, 無有不浮處. 其爲症, 例因春夏之交而劇, 劇則不能轉側¹⁾俯仰, 呼吸煩促, 夜不交睫, 食飲專廢, 殆不能救者數矣. 臣之前後屢違朝命, 蓋不忍暫離母側也. (….) 卽日臣家奴來報母邊消息, 則家中染癘, 又起於既熄之後, 大小奴僕俱痛, 臣母葦以身避, 懼處陋宇, 多失食飲節, 嘔泄霍亂, 浮脹添重, 遍身拘急, 苦苦不堪云. 臣徊徨焦煎, 不知所出.”

감안할 때 모친의 병을 운위한 위 인용문과 같은 상황은 그리 낯설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모친의 병증에 대해 위와 같이 구체적으로 접근한 예는 상당히 드문 예에 속한다. 늙고 병든 어머니에 대한 애끓는 호심을 강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위의 글에 보이는 조경의 면모는 병든 어머니를 보며 ‘잠시라도 어미 곁을 떠날 수 없고’ ‘답답하고 애가 타서 견딜 수 없는’ 호성에 넘치는 아들이기도 하거니와 11년이 넘도록 지병을 앓고 있는 어머니의 증상을 정확히 진단하고 누구보다 그 병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는 전문적인 의원의 그것이라 할 수 있다. 전자의 면모는 후자에 의해 지지되고 설득력을 얻게 되는데, 진정한 사랑과 연민은 구체적인 지식과 이해에서 나오는 법임을 위의 예에서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전란의 경험과 더불어 ‘의료화’라 할 수 있는 사회적 변화가 맞물려 있었던 17세기 조선의 현실 속에서 수사(修辭)에 불과했던 사직 상소의 청병 어법은 실제 병증을 꽤maß적일 정도로 구체적으로 언급한 문체로 바뀌며 모종의 진정성을 획득한다. 조경의 사직상소는 이와 같은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것인 동시에 그 특유의 전문적인 식견과 질병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그에 따라, 그의 글쓰기에서는 ‘의원의 시선’이라 할 것들이 일관되게 발견된다.

더 나아가 그는 사직의 용도로 쓴 것이 아니라 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 여타의 상소에서도 의원의 태도를 보여준다. 이는 주로 개인의 질병이라는 문제를 국가 정치의 문제로 환치시키는 낮은 은유법으로 표현된다. 그는 1658년 효종의 환후를 단서로 ‘청심과욕(淸心寡欲)의 경계’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상소를 올리고, 1664년에는 현종이 지병을 치료하기 위해 온천에 다녀와 차도가 있었던 것을 단서로 삼아 질병을 지니고 있을 때보다 질병이 나왔을 때 더 조심해야 하고 이 점은 나라를 다스리는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라는 내용의 상소를 올렸다. 그런데 그와 같은 상소의 출발점이 국왕의 병이라는 것은 주목할 만한 점으로 보인다. 자신의 질병을 응시하는 태도가 어머니와 같은 주변 사람으로 확대되고 더 나아가 국가라는 추상적인 대상으로까지 관철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국가의 상징만으로 간주되기 쉬운 국왕도 질병을 안고 살아가는 구체적 존재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이다.

3. 결론

만물이 병들었다는 발견에서 출발하여, 세계에 존재하는 무엇도 완벽한 것은 없지만 저마다의 결함 있고 불완전한 상태가 자연스럽고 의미 있는 것이라는 이해에 이르고 있는 조경의 세계관은 병든 세계를 낙관하고 긍정 하는 것 이상의 깊이를 지닌다. 이와 같은 그의 세계관이 형성되는 데 질병이라는 계기가 중요하게 작용했음은 당연한 일이거니와, 기존 논의에서는 질병을 겪다 생을 마친 가족과 친지들을 애도하는 글들을 분석하여 그가 타인의 질병을 대할 때 의원으로서의 태도를 견지했음을 확인한 바 있다. 그렇다면 조경 자신은 어떠했을까? 그 스스로 겪은 질병이 그의 문학세계에 어떤 중요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또한 관료로서 그의 역사적 경험은 질병을 단서로 그의 문학세계를 해명하는 데 어떤 빛을 던져 주지는 않았을까? 본고는 이와 같은 질문에서 우선 출발하였다.

조경의 문집 가운데 사적인 글을 살펴보면, 그가 자신의 질병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타인의 병중에 대해 언급한 경우에 비해 현저히 적다. 뜻밖에도 그의 구체적인 병력이 드러나는 곳은 지극히 공적인 입장에서 쓴 상소문류의 글이라는 점이 주목된다. 조경의 상소문에는 질병에 관련된 언급이 무척 빈번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그가 43세이던 1628년부터 80세가 되던 1688년까지 지속되는 경향을 보인다. 그는 상소문 가운데서 주로 자신과 모친의 질병, 그리고 나아가 국왕의 질병에 대해서까지 꾸준히 언급하여 각각의 글에서 자신의 취지를 전달하는 근거로 삼고 있다. 이 가운데 사직을 목적으로 올린 상소문을 검토하면 40년 가까이 지속된 그의 관력이 그 자신 및 모친의 병력이라는 개인적 상황과 밀접하게 맞물려 있는 양상이 오롯이 재현된다. 그 정도로 그의 상소문에서는 자신과 모친의 병에 대한 전문적이고도 쫓진한 묘사가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조경의 상소문은, 우선 전란의 경험과 그에 따른 육체 및 질병에 대한 관심이 공적 영역 가운데 개인의 문제를 어떻게 부각시키기 시작했는지를 명료히 보여준다. 아울러 전쟁 직후 ‘의료화’라 할 수 있는 사회적 이고도 역사적인 변화가 가속화되던 17세기 조선의 현실 속에서, 그 이전에는 수사(修辭)에 불과했던 사직 상소의 칭병(稱病) 어법이 질병에 대한

고도의 사실적인 인식과 표현으로 진전해나가던 양상을 대단히 전형적으로 구현해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조경의 상소문은 의의를 갖는다.

참고문헌

- 趙綱, 『龍洲遺稿』, 한국문집총간 영인본 90집, 민족문화추진회, 1992
- 趙綱, 최예심 외 역, 『역주 용주유고』, 학자원, 2015
- 趙綱, 권오영 역, 『용주일기』, 용주연구회, 2014
- 申欽, 『象村稿』, 한국문집총간 영인본 72집, 민족문화추진회, 1991
- 李廷龜, 『月沙集』, 한국문집총간 영인본 69집, 민족문화추진회, 1991
- 李恒福, 『白沙集』, 한국문집총간 영인본 62집, 민족문화추진회, 1991
- 李珣, 『栗谷全書』, 한국문집총간 영인본 44-45집, 민족문화추진회, 1989
- 李滉, 『退溪集』, 한국문집총간 영인본 29-30집, 민족문화추진회, 1989
- 鄭述, 『寒岡集』, 한국문집총간 영인본 53집, 민족문화추진회, 1990
- 鄭蘊, 『桐溪集』, 한국문집총간 영인본 75집, 민족문화추진회, 1991
-
- 김하라, 『龍洲 趙綱 문학에 나타난 질병의 형상화』, 『한국한문학연구』 52, 한국한문학회, 2013, 5~46면.
- 송혁기, 『사직상소문의 문학적 연구를 위한 일고』, 『한국한문학연구』 48, 한국한문학회, 2011, 143~180면.
- 신동원, 『조선 사람 허준』, 한겨레신문사, 2001.

The change in the disease representation
after two great war in Joseon: the case of Jo Kyeong

Kim, Ha-ra

This study suggests elucidation about one aspect of Jo Kyeong 趙綱's literature, which tells significant reference to the experience of human disease, by making an analysis of his proses written in the position as a government official. There are constant descriptions of personal difficulties caused by serious disease, especially in Jo Kyeong's petitions for resignation. Although written as official documents to the ruling King of Joseon 朝鮮, we can find detailed case histories of Jo Kyeong and his stepmother in these elaborated proses. This kind of articles used to have regular patterns in rhetorics, which would not demonstrate one's real physical status of health and could be under some suspicion of malingering to conceal one's privacy. Jo Kyeong's analytic narrative mode about disease is substantially different his senior government officials' before two great war in Joseon. Influenced by widespread personal medical writing style of the time, one's almost grotesque description forms a striking contrast to the other's euphemism. Jo Kyeong and his contemporaries experienced wars and the physical sufferings that accompanies the war. Their experiences involves both the intensified recognition and expressions about their own body and disease, in public realm. Jo Kyeong's petitions for resignation shows the change in disease representation of late Joseon literature exponentially.

keywords: Jo Kyeong 趙綱, petition the King for resignation, disease, medical records 病錄, the suffering attendant on war

접수일자: 2016. 3. 31.
심사기간: 2016. 3. 31.~2016. 5. 10.
게재결정: 2016. 5. 10.